

14. 분재 감상법(보는 방법과 감상 포인트)

분재는 웅장한 자연 풍경을 ‘살아있는 예술’로서 분기 속에 응축한 것입니다. 다음의 간단한 포인트와 함께 이 점을 명심해 두면 만든이가 담은 식물에 대한 애정과 마음이 보여 분재를 더욱 가깝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재의 ‘정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재는 정면과 후면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재 장인은 재배하는 분재의 특징이 되는 부분을 정한 후 그 특징이 정면을 향하도록 화분에 심고, 분재를 정면에서 감상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무를 키워갑니다. 가지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 부분이나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분재의 ‘정면’을 찾기 위한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분재 장인은 작품을 볼 때 분재의 뿌리 또는 줄기의 밑동에 관점을 두므로 이 점을 의식하면서 분재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관찰하면 작게 유지된 나무가 듬직하게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재 전체뿐만 아니라 뿌리가 뻗어있는 모양새나,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줄기, 우아하게 펼쳐진 가지, 잎의 색깔 등 각 부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와 진백에서는 일부 줄기나 가지가 말라서 흰 줄기가 드러난 상태로 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른 가지 끝은 ‘신(神)’, 줄기의 일부는 ‘사리(舍利)’라고 불려 분재에 엄숙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